

25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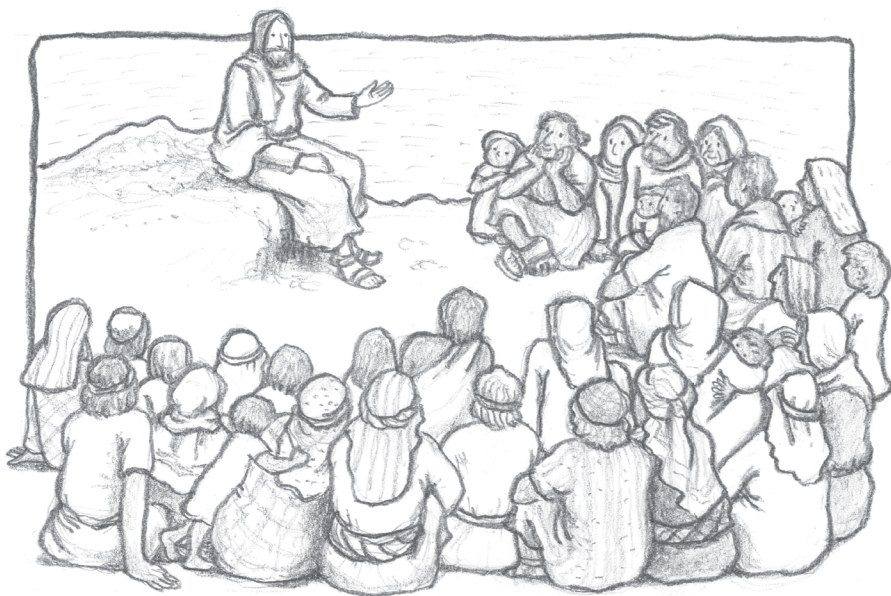
요 1:35~42, 히 13:7~17

은혜찬송 207장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 9장 (한 눈 먼 사람이)

오늘 배울



1.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심을 압니다.
2. 예수님께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심을 압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7)



을 이해하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고, 공생애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머리되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치는 일을 위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인이나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살전 2:13).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가르침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 13:17)

Obey those who rule over you, and be submissive, for they watch out for your souls, as those who must give account. Let them do so with joy and not with grief, for that would be unprofitable for you. (He 13:17)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순종, 복종, 경성, 회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적어보세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말씀을 이해하기’를 잘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아들이신 ()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 ②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면 예수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지 예상해 봅시다.

나의 질문 :

예수님의 답변 :

3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선생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 분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성경은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0:40). 교회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고 감사의 편지를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마 10:40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월

요 4:34

화

행 10:33

↑

고전 4:15

↓

갈 6:6

↓

살전 2:13

↓

히 13:7



다들 그렇게 해요

한 아버지가 여섯 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그 밑에 만원짜리 몇 장을 살짝 감추어 건네줬습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애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아이의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의아해 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괜찮다. 세금을 제대로 다 내다간 남는게 없어. 다들 그렇게 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과일가게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싱싱한 과일은 잘 보이게 해 놓고 오래된 과일은 뒤에 감춰 두었다가 팔 때 끼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그만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온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 말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 4:19)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질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심한 환난을 당하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화를 당하는지를 이 민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미리 약속해 두셨던 것입니다(신 28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마 27:25)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의 대가를 자기들뿐 아니라 자손들도 치르도록 하겠다고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경고하셨던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하나님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조상들의 죄와 그 말로 인해서 1900여 년간 계속해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영혼 구원의 기회까지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저주는 육신에 내린 것이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고, 배척하면 영혼도 지옥입니다.